AI&미래불교

1 불교AI 활용 어디까지 왔나

불교, AI와 만나다…법문·상담·경전 보존까지 확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인공지능(AI) 물결이 종교계에도 밀려들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화·온라인 법회 수준에 머물던 불교계가, 최근에는 대화형 챗봇·아바타, 로봇 설법, 경전 디지털 아카이브 등 다양한 AI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 전통과 교학의 정합성 문제, 의례의 본질에 대한 논쟁도 뒤따르지만 인류의 가장 오래된 종교 중 하나인 불교가 최신 기술과 어떻게 만나는지 그 흐름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상담 · 법문하는 '스님AI'…국내 불교계의 실험

한국 불교계는 조계종 등 종단이 적극 합류해 AI 도입을 선도하고 있다.

2024년 4월 개최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선보인 '열암곡 마애부처님 AI'는 고민 상담형 챗봇으로 사용자가 일상 고민을 입력하면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8월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고민상담소 스님AI' 서비스가 선보여졌다. 법문 제공, 고민 상담, 경전 학습 보조 기능을 결합한 온라인 AI 플랫폼으로, 진짜 스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불교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마중물 역할은 할수 있겠다는 것이 대중의 평가다. 전통적 설법이나 마음을 전하는 상담을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MZ세대에게 불교의 메시지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려는 시도로 읽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불교 언론도 AI 상담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현대불교신문은 올해 4월 AI 기술을 활용한 불교상담 서비스 '해심이'(解心)를 공식 오픈했다.

'해심이'는 구글의 제미나이 무료버전과 구글 AI 검색 기능을 기반으로 불자 맞춤형 신행상담은 물론 마음 치유, 명상, 수행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불교신문 뉴스사이트 현불뉴스(hyunbulnews.com)에서 상담봇 아이콘을 누르면 별도의 상담창을 통해 제공된다.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현장 부스에서 '해심이'를 직접 체험한 참관객들은 "해심이가 생각보다 위로를 잘 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 이모티콘도, 인터넷 용어도 잘 활용한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부스 라운딩 중 해심이를 접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불교대중화에 앞장서는데 한 몫 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하기도 했다.

세계 곳곳의 AI 불교

해외에서의 불교 AI 활용은 더욱 다채롭다. 부탄 중앙승가와 교토대가 공동 개발한 'BuddhaBot'은 올해 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영어 기반 질의응답과 스님들의 교학 학습을 지원하며, 향후 3년간 약 200명의 스님이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미국 선종 커뮤니티는 'Roshibot'을 제작했다. 선사 슌류 스즈키의 법문을 학습해 선수행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도록 설계됐다. 일본 고다이지(高台寺)에서는 '마인다르(Mindar)'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관음상 형상을 빌려 설법을 시도한다. 손짓과 제스처까지 구사하며 청중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은 큰 화제를 모았다.

태국의 'Phra Maha AI'는 SNS 기반 가상 승려로, 청년층 대상 불교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됐다. 불교의 교리를 버추얼 인플루언서 형식으로 전달하는 실험은 기존 사찰 중심 교화 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준다.

방대한 경전 기록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데도 AI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고민상담 챗봇 개발 봇물
본지 '해심이' 박람회서도 인기

세계 각국서 경전 지원 AI 개발
고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어

오류 편향 확대 막기 위해서는
교단 · 학계 협력 품질 관리 해야

티베트·범어·한문 경전의 디지털화는 이미 국제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 중이다. 불교디지털리소스센터(BDRC)는 티베트어 OCR 앱을 공개해 스캔본을 텍스트화하고 번역·검색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도장(관인) 인식 AI로 대량 자료를 자동 분류하는 기술도 도입됐다.

대만 불교전자불전협회(CBETA)는 중국 대장경 전산화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석경(비문) 텍스트까지 확장하면서 연구 저변을 넓혔다.

국내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이 고문헌·고신문에 AI-OCR을 적용해 불교 자료를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불교 기록문화 아카이브와 K-Buddhism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한글 불교문화유산을 디지털화했고, 생성형 AI 기반 불교 콘텐츠 제작에도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AI가 정법을 전할 수 있을까?"

AI를 활용한 설법 로봇과 사이트가 점점 활기를 띠며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AI가 수행의 깊이를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도 일고 있으면서 일각에서는 "로봇의 설법이 인간적 공감과 수행적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가"라는 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쟁점은 교학적 정합성과 권위 문제라고 말한다. AI가 오류를 일으킬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 로봇 장례와 설법 실험은 인간적 공감과 의례의 진정성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경전 데이터의 저작권·번역 차이 문제도 신뢰성을 위협한다. 불교계 내부에서 AI의 역할을 '보조 도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교계 AI 활용의 방향을 '도구적 수용'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AI는 상담·포교·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일 수 있으나, 정법 전승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 검증 체계 구축 △교단 차원의 윤리 가이드 라인 마련 △데이터 정본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한 AI 전문가는 "커뮤니티 주도형 챗봇이 난립하면 오류와 편향이 확대될 수 있기에, 교단·학계 등이 협력해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적절한 검증과 윤리적 장치를 전제로 한다면 AI는 불교가 현대사회와 소통하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효찰대본산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 주 사
주 지 성효
사부대중 일동
(18347)경기도 화성시 용주로136(송산동)
(031)234-0040/팩스(031)234-2818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